

전북교육청 신규 혁신학교 지정

군산 나포초·익산 여산초 등 5교, 혁신+학교는 김제 백석초 등 11교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1년부터 운영될 신규 혁신학교 5개교, 혁신+학교 11개교 등 총 16개교를 선정·발표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혁신학교 공모를 통해 군산 나포초와 군산흥남초, 익산 여산초, 김제 용지초, 고창

고창중 등 5개교를 신규 혁신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들은 이미 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학교 혁신 철학의 공유가 활발하며, 특히 교육과정 달여내기 등 혁신학교의 기반이 준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혁신+학교에는 군산 옥구중·한들고, 익산 오산남초·황등중, 정읍 덕천면 학교들은 이미 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학교 혁신 철학의 공유가 활발하며, 특히 교육과정 달여내기 등 혁신학교의 기반이 준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중 완주 고산고와 삼우초는 도교육청과 연계해 다양한 영역의 교육적

의제를 발굴·실현하는 학교인 광역거점형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지역기반 혁신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지역혁신교육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거점형'으로 지정·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신규 지정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철학세우기 연수를 갖고, 혁신학교의 철학과 학교문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학교는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정병권 대학혁신지원사업본부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호원대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생 모니터링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가와 평가를 위해 재학생 대표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 홍보와 성과 확산을 위

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 취재 및 인터뷰 활동과 함께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정은성 기자

전북노인체육회 창립총회

전북노인체육회 창립총회가 전주시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사)대한노인체육회 김철환 회장을 비롯한 김영일, 한상철 부회장 장수축구협회 김길문 회장 장수축구협회 관계자 및 도내 종목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군산 서수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진행한다.

지난달 15일 (사)대한노인체육회 회장 김철환으로부터 전북노인체육회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문철 조직위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총회에선 전북노인체육회 규정을 제정하고 시군 노인체육회 및 종목 육성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대한노인체육회는 지난 2018년 창립대 노년인구 1000만 시대에 노년들을 위한 다양한 운동 종목 개발보급 및 노인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목적을 위해 설립됐다. 그동안 추진해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돼 제10조의 2 노인 체육이 진흥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체육에 관련한 시설 및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문철 초대 회장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짐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여가생활 그리고 노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전라북도노인체육회 설립을 통해 노인체육이 활성화 돼 건강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사업단

4차산업혁명형 인재양성

전주비전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난 5일~16일까지 9일 동안 4차산업혁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드론축구 이론 및 활용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표하는 무인드론 기초 및 응용기술 등을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체 취업 및 자격증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가 드론축구와 관련 소재 및 서비스 등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ICT융합 기술 발전에 지원하고 있다. 전주비전대학교에서도 드론을 활용해 영상촬영 및 편집 기술을 적용한 각종 미디어 산업, 3D모델링 기술을 적용한 지적정보 관련 산업 등 드론 활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주비전대는 지난 7월 한국대학드론스포츠회에 참여해 드론 산업 선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의회 소속 대학들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대학드론축구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교육은 전주비전 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재학생 21명이 참여해 드론이론 및 응용분야, 드론 조립, 드론 조종 등을 직접 실습하도록 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교육기부센터, 군산 서수초 찾아

시극·발레·전통무예 등 문화 프로그램 11월까지 진행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센터장 박병기)와 (사)대한노인체육회(협회장 김영근)가 교육기부에 나섰다.

군산 서수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문화 프로그램은 시극과 시낭송, 발레, 무예, 판소리와 레크리에이션, 악기 체험, 난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학생들에게 전통무예인 활쏘기와 신라 화랑들의 심신 단련이 목적인 검법 '본국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무예들은 조선시대 정조대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무예도보통지'를 통해 전해오는 것들로 꾸며졌다. /정은성 기자

김영근 무예 교육 기부자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며 "전통무예 체험을 통해 문무를 겸비하며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수초 오우영 교사는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개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해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기부 지역센터 활성화 방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블렌디드 수업이 대세”

전주영체, 초등 5년 대상 동영상 콘텐츠 제공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원장 이영숙, 이하 전주영체)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게 제공할 동영상 콘텐츠 9편을 추가 제작해 총 25편의 주중체험 프로그램 수업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과후수업 콘텐츠 16편을 더해 총 41편의 동영상 콘텐츠를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영어체험활동의 결손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학교는 등교·원격수업을 번갈아 운영하면서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전주영체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블렌디드 수업 활성화 및 적용에 이바지하고자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추가 제작했다. 학교에서는 이 콘텐츠를 활용해 원격수업 간 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간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동영상 콘텐츠는 전주영체 홈페이지(jv.or.kr)에서 이용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입소가 힘든 학교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콘텐츠를 원격수업의 유형 중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각 콘텐츠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 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이 확보되게 만들어졌으

며, 학교 및 학생 실정에 따라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활용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이번엔 추가 제작한 신규 콘텐츠는 원어민 보조교사 8명과 초등 교원 5명이 지난 1차 동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학교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다 완성도 높게 만들어졌다. 교사들은 원격수업 질 제고 및 소용 확대를 목표로 콘텐츠 활용중심 수업 안에서 최대한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콘텐츠를 제작했다.

신규 콘텐츠의 수업 주제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의 주제중심 수업에 따른 원하는 색 만들기, 쇼핑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말, 내만의 동물 만들기 등이며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 콘텐츠에는 영어자막 및 한글 해석 등이 적절히 포함돼 있어 학생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재 역시 자체 제작했으며, 수준별·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지를 통해 보충 및 심화 학습이 이뤄지게 했다. 교재는 학교에서 요청한 수령인원 전주영체에서 직접 학교로 배부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청년 일자리 살리고
농업·농촌·농민 지원 / 교육·지능 지원사업

금융생활 살리고
신안·신용·금융·보험 / NH5 앱 서비스

지역경제 살리고
전국 2,500개 지역·판매·유통 / NH5 앱 서비스

농가소득 높이고
농·농민·농촌 / NH5 앱 서비스

먹는 즐거움 높이고
농·농민·농촌 / NH5 앱 서비스

농업가치 높이고
농·농민·농촌 / NH5 앱 서비스

농촌행복도 국민행복도

살리고 높이고

농업은 다양한 농업 농촌 지원사업과 고객 서비스로 농촌도 국민의 삶도 더욱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농업이 함께하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

NH 농협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장경민**
 순창농업협동조합 **선재식**
 동계농업협동조합 **양준섭**
 구림농업협동조합 **이두용**
 서순창농업협동조합 **박상철**